

올 해안 방재림 16ha에 16만그루 심는다

전남도, 고흥 남열리 등 11곳서 시행 해안 침식 방지 사업 6.5km 추진도

전남도는 올해 해안 방재림과 해안 침식 예방 사업 등에 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재림 사업은 고흥 영남 남열리, 영광 영산 두우리 등 4개 시군 11곳에

서 시행되며 16ha에 모두 16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주로 해송과 해당화 등 염해에 강한 수종이 식재된다.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무안 현경

수양리와 완도 금일 동백리 등 5개 시군 6.5km 구간에서 추진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5년간 200ha 이상 면적에 방재림을 심을 계획이다. 방재림 사업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으며 모두 78억원이 투입돼 각각 19ha와 23km 구간에서 사업이 시행됐다. 지난 2009년 산지보전협회가 주관한 전국산림생태복원대회에서 완도

금일 해안 방재림, 무안 해제 해안 침식 방지사업 등이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안 방재림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래 날림, 해일, 풍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안과 연결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지진 해일이 폭 60m의 방재림을 통과할 경우 속도는 70%, 위력은 90%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식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5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잦은 태풍 등으로 전남지역 내 해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해안 방재림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며 “공무원과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녹색산림 버섯학교 운영 27~29일 수강생 모집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5일 버섯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녹색산림 버섯학교’ 수강생(정원 20명)을 27일부터 3일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버섯학교는 버섯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소비자들과 농민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한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전남도민과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다. 산림자원연구소 버섯 전문가 등이 손쉬운 실생활 버섯재배법의 이론과 실무기초 등 현장 중심의 실용교육으로 진행한다. 전남지역은 1300여 농가에서 국내 생산량의 20%가량인 3만여kg을 생산, 50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주산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매화축제 영호남 있는 부교
매화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2013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변에 광양 섬진마을과 하동 만지마을을 잇는 부교가 설치돼 교통체증 해소와 영호남 상생 무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개발제한구역 주민 편익 31억 투입

전남도, 나주·담양 등 4개군 저온저장고 등 건립

전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올해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4개 시군에 총 31억 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엄격한 행위규제로 내 주민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마을 진입도로, 농로,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올해는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농·배수로, 마을회관, 친환경 농산물판매센터 조성 등 12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

을 줄 계획이다. 윤진보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하겠다”며 “개선사업 선정 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저소득 아동에 꿈·희망 심어주기

장성, ‘새싹꿈터’ 2호점 유치

장성군이 ‘새싹꿈터’ 2호점을 유치해 아동 인성교육 기반을 확충했다. 새싹꿈터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단법인 드림투게더와 ‘새싹꿈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폐교인 옛 활룡분교를 제공하고 운영은 ‘새싹꿈터’에서 맡게 된다. 새싹꿈터는 건물 리모델링과 조경을 포함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며,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은 KT, 현대차, 매일유업, KBS 등 22개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운영된다. 특히 아동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우주와 바다, 친환경 개념의 숙소와 활동학습이 이뤄지는 강당, 놀이공방, 자연 도서관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새로운 체험과 놀이, 발표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새싹꿈터는 아동들이 꿈을 만들고 키우는 체험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움의 고장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기자 노트 광양시의회, 새 의회상 정립 시급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면 단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지나친 민원까지 제기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소규모 공사에 관여하고, 일선 면장들을 이곳저곳으로 호출하는 것은 이미 당연시되고 있다. 주민의 공복이 아닌 시의원의 ‘사복(私僕)’이 돼버렸다는 한 공무원의 하소연은 일부 시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한 면장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을 민원이라고 내놓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공직에 들어와 가장 어려운 것이 의원을 모시는 것”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민원을 제기한 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의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꾸짖는 등 보복성 질의나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의 ‘시의원 눈치보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선 6기 시의회가 임기 절반을 넘어서면 서부터 초심은 은데간데 없고, 시민들은 버려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춰 민원 해결에만 분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선진지 견학 및 의원연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초의회의 역할과 신장한 대민봉사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인 광양시 역시 시의회에 마냥 휘둘릴게 아니라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의회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들의 눈은 언제나 시의원과 시청을 향하고 있다. /광양=pyj4079@kwangju.co.kr



박영진
동부취재본부 차장



지역 전통문화·예술 글로벌 상품화

도-문화산업진흥원 워크숍

전남도와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25일 오후 2시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전통문화 활용 창조적 콘텐츠 개발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남도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현대화하고 첨단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산·학·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강남스타일’로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한류’로 떠오른 ‘한류 3.0’의 핵심으로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현대화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전영웅 국장은 ‘지역 문화자원의 국가 브랜드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문화에 숨겨진 콘텐츠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성균관대 문철우 교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역의 관광과 결합한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주 전남문화산업진흥원장은 “K-Pop 위주의 한류에서 벗어나 한국적인 가치를 지닌 글로벌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순회 세미나를 통해 22개 시군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